2026.04.08

[국내주식 마감 시황]

이재원 Market Analyst | jaewon2.lee@yuantakorea.com
김세빈 Research Assistant | sebin2.kim@yuantakorea.com

2월 12일 이후 최대규모 순매수한 외국인

KOSPI 5,872pt(+6.9%), KOSDAQ 1,089pt(+5.1%)

해외 시황 — 트럼프 최후 통첩 90분 앞두고 휴전 선언

- 트럼프, 금일 한국시각 7시 30분 SNS서 휴전 발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으로 2주간 폭격 중단. 이란 외무장관도 휴전 공식화. 유가, 시장금리, 모두 급락, 나스닥100선물도 급반등. 향후 대면 회담 예정

수급 — 외국인 수급, 현재 중요합니다

- 4월 들어 순매도 강도 대폭 줄인 외국인, 금일 KRX KOSPI 현물 기준 2.4조원 순매수. 이는 2월 12일(3조원) 이후 최대규모. 3월 이후 외국인 순매도 반도체, 대형주 위주 집중되며 지수 하방 압력 및 원화 약세 야기. 외국인 자금 유입이 중요한 이유. 금일 K200선물도 개인 1,998계약, 외국인 7,021계약 순매수하며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수. 대형주 및 전기전자 중심

시황 — 삼성전자 전일 아쉬웠던 상승분 만회. 여전히 저평가 국면

- 금일 KOSPI, KOSDAQ 각각 6.9%, 5.1% 급등. 차익실현 매물 출회된 방산 테마 제외 전업종 상승. 전일 삼성전자 1분기 잠정실적 영업이익 57조원의 충격에도 금일 트럼프 최후통첩 앞두고 어떤 충격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Risk-Off 심리로 작용하며 상승폭 미미. 오늘 삼성전자(+7.1%), SK하이닉스(+12.8%) 상승폭 확대의 배경. 외국인 자금 유입과 유가 안정화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이 원/달러 환율도 25원 급락시키며 1,475원대 등락. 환율 변동성 감소 기대. 5,000Pt 위협받던 KOSPI 단숨에 5,800Pt 복귀하며 전고점 탈환 시도. 전일 종가 기준 12개월 선행 PER은 7.56배에 불과. 현재 수준의 지수 레벨도 과거 평균 PER 적용시 현저히 저평가 국면. IT와 산업재가 이끄는 이익추정치 상향 사이클은 끝날 생각이 없음을 전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서 확인. 미국-이란 대면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이 우호적인 결과 도출한다면, 시장 시선은 다시 펀더멘털(기존 주도주)로 이동할 전망

특징업종 — 대형주, 재건, 주식시장 상승 재개라는 세 가지 기대감

- 대형주 강세에 반도체, 자동차 포함 대부분 업종 상승 **1) 재건(건설):**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 정체 해소 지원하겠다며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SNS서 언급(희림 상한가, 수산세보틱스 상한가, 현대건설 +21%) **2)증권:** 금일 KOSPI, KOSDAQ 합산 거래대금 다시 50조원 수준으로 도약. 주식시장 반등 및 강세? 증권주도 달린다(신영 +12.9%,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12.2%)

이벤트 — 10일부터 미국-이란 대면 협상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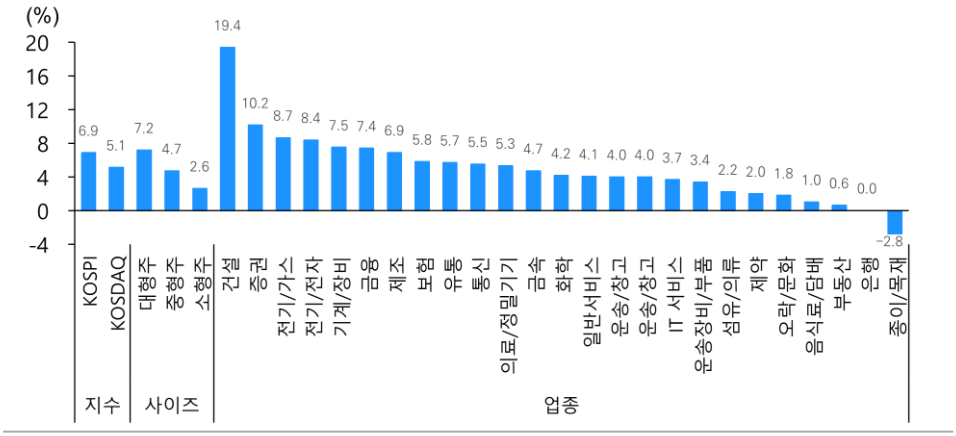
- 4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이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대면 협상 가질 예정. 협상 진행 과정 살펴볼 필요
  1) FOMC 의사록 공개 (9일 오전 3시) 2) 미 델타항공 실적(8일 오후 11시) 3) 기아 CEO 인베스터 데이(9일)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27,145	3,711
외국인	24,358	2,405
개인	-54,165	-5,836
거래대금	356,037	130,049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